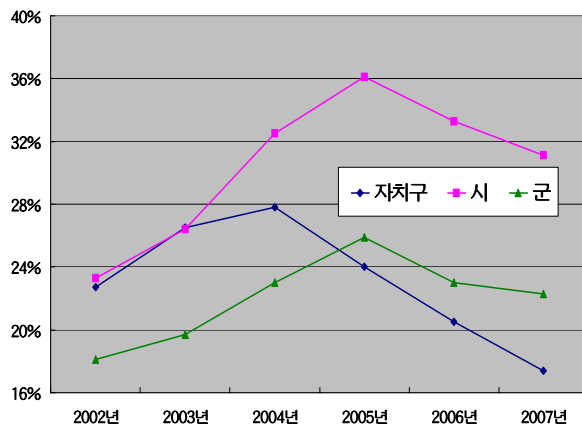


<표8>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총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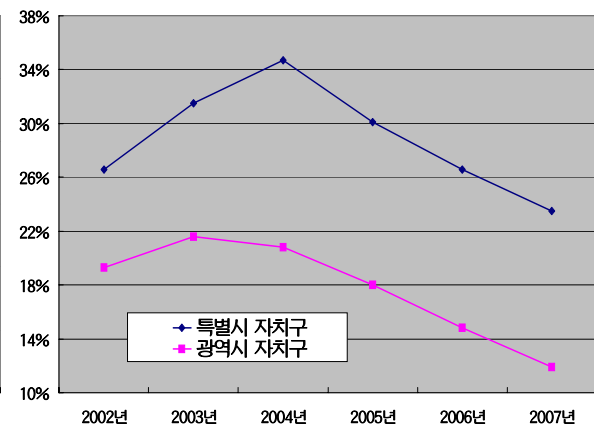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전체(광역+기초)	22.3%	24.5%	28.9%	30.5%	28.5%	26.6%
기초자치단체	21.7%	24.5%	29.1%	31.1%	28.1%	26.3%
시(77)	23.3%	26.4%	32.5%	36.1%	33.3%	31.1%
군(88)	18.1%	19.7%	23.0%	25.9%	23.0%	22.3%
자치구(69)	22.7%	26.5%	27.8%	24.0%	20.5%	17.4%
특별시 자치구(25)	26.6%	31.5%	34.7%	30.1%	26.6%	23.5%
광역시 자치구(44)	19.3%	21.6%	20.8%	18.0%	14.8%	11.9%

<시·군·자치구 자체사업 예산 비율>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자체사업 예산 비율>



2.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전망

1) 지방의 재정부담 가중 및 가용재원 부족문제 가속화²⁾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율은 2010년 16.5%까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 자체사업 예산 비율은 2010년 24.4%까지 감소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재정 부담 전망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그 이유는 2004년부터 법정부적 차원의 사회복지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Vision 2030”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앞으로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적어도 2004년 이전의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2007년은 지난 3년간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비율의 평균(114%)을 적용하여,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여러 대책이 마련된다면 지방의 재정부담은 이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